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 출범을 비롯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까지 대전, 세종, 충남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희망과 도약의 기회속에서
대전MBC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전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열어가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MBC



무주 덕유산 정기에 주름 학 퍼졌네

머루와인 동굴탐방, TOP4 1,614m향적봉 밟고 정상정복 기쁨 만끽
곤돌라 타고 올라가며 발 아래 스키장과 울창한 나무 숲 보는 것도 장관



▶ 작업용 터널 머루와인 동굴 입구 ▶ 문화탐방 참가 회원 모두가 함께 편한 자세로 찰떡 ▶ 여기가 향적봉! 노익장을 해냈다.

6월 28일 원로 문화탐방 - 무주특산 머루와인 선물
원로회원 문화탐방을 끝으로 사무처가 주관하는 2013년도 상반기 사우회 행사가 마무리됐다. 원로회원 문화탐방은 6월28일 (금요일) 무주 덕유산 일대에서 실시됐다.

오전 8:00, MBC 대형버스가 사우회를 출발했는데 회원들의 표정은 어느때 보다 밝고 건강했으며 비록 당일치기이기는 했지만 모처럼 지방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이 원로들을 들뜨게 했다. 버스는 11:00에 덕유산 입구 머루와인 동굴에 도착했다. 머루와인 동굴은 1988년에 무주양수발전소를 건설할 때 작업용 터널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 무주 특산물인 머루재배 농가의 수익을 높여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무주군이 발전소측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길이 579m, 넓이 4.5m, 높이 4.7m로 크고 넓었다.

원로회원들은 3종류의 와인을 시음할 기회를 가졌으며, 머루주스도 한잔씩 맛볼 수 있었다. 장마철 여름날씨가 대부분의 회원들이 반팔 가벼운 차림으로 여행에 나섰는데 20도가 밑도는 동굴 기온은 서늘하다 못해 추위를 느끼게 해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다. 대전에서도 멀다하지않고 찾아온다는 소문난 '섬마을식당'에서 '어죽'으로 호강을 한 회원들의 다음 행선지는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 해발 1,614m

로 우리나라 산 가운데서 4번째로 높은 산이다. 참가 회원들이 나이가 많은 원로들이고, 무주 명물인 곤돌라도 타볼겸해서 해발 1,540m인 설천봉까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기로 했다. 곤돌라는 2,600m 거리를 거의 흔들리지 않고 15분 동안 올라갔다.

발아래 펼쳐진 눈(雪)없는 스키코스과 형형색색 울창한 나무들을 곤돌라에서 바라보는 것도 장관이었다. 설천봉에서 향적봉까지는 600여m, 나무계단으로 잘 정비된 이 600여m를 20여분동안 걸어야 했다. 몸이 불편한 회원을 빼고 24명이 향적봉까지 올라가 인증사진을 찍으며 정상정복(?)의 기쁨을 만끽했다. 힘들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회원들은, 사우회 덕분에 좋은곳 구경한다며,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사무처 요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도 했다. 원로회원들은 무주 세인트 휴 클럽에서 사우나로 피로를 풀고 저녁 8:00쯤 무사히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 무주 덕유산 문화탐방에는 노서를 고문을 비롯해서 원로회원 31명과 사무처 3명, 도우미 2명(박종완-이대교), 그리고 무주가 고향인 황영옥(보도) 회원이 특별 해설자로 나서는데 모두 37명이 참가했다. 사우회는 참가한 회원들에게 무주 특산 머루와인 한병씩을 선물해 원로들의 기쁨을 배가시켰다.

MBC 김종국사장, 사우회 깜짝 방문

7월 4일 예고없이 사우회들러 사무처회원들과 인사나눠
이장석 경영기획 본부장과 오정우 경영지원국장 동행, 사우회 지원에 관심 표명

MBC 김종국 사장이 7월 4일 오전 사우회 사무실을 깜짝 방문했다. 김사장은 이날 경향신문 건물 11층에 있는 정수장학회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같은 건물 10층에 있는 사우회 사무실을 예고없이 잠시 들렀다. 김사장은 백하현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사무처 요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오정우 경영지원국장에 '사우회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상암동 신사옥 상가 1개점포의 분양절차는 잘 돼가고 있는냐?'고 묻기도 했다. 김사장은 또, 때마침 사

우회 사무실에서 '맹자(孟子)'를 배우고 있던 한문공부 동호회(회장 이건설) 회원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선배들의 학습열을 격려하기도 했다. 김종국사장의 사우회 방문에는 이장석 경영기획본부장과 오정우 경영지원국장 등이 동행했다.



신사옥 상가분양 회장단 회의서 곧 결정

안정적 수입보장과 운영 리스크없는 업종선택에 고심

MBC상암동시대 개막 내년 4월 첫 전파, 상가는 앞서 문 열어

MBC 상암동 신사옥 상업시설 분양과 관련해, 신사옥기획부 피용선부장과 염태규차장이 4월1일과 7월1일 두차례 사우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설명회를 가졌다.

상암동 신사옥에는 타원형으로 설계된 전면상업센터를 비롯해서 방송센터 지상 1~2층과 지하 1층, 미디어센터 지상 1층에 상가가 조성되는데 상업면적은 총 4,361평이다. 전면상업센터에는 대형 복합매장과 연회장 및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서며, 방송센터와 미디어센터 상업 지구에도 카페와 파인 다이닝 등의 브랜드를 유치할 계획이다.

신사옥기획부는 5~6월 두달동안 입주가 가능한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7월 한달동안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사무처는 이들의 설명을 들은 다음, 1)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고 2)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며 3) 운영에 따르는 리스크가 없는 업종이 무엇인지? 4)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무처는 가까운 시일 안에 회장단 회의를 열고 상암동 신사옥 상가 분양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MBC는 2014년 4월에 상암동 신사옥에서 전파를 발사하고 상암동 시대를 개막하게 되는데, 상가는 이보다 앞서 문을 열게 된다.

MBC관계회사 사장 선임 3명



추신수
류현진

2013 메이저리그 득점 생중계

대한민국 No.1 스포츠 채널

MBC SPORTS+

MLB 프로야구 BASEBALL TONIGHT

MBC+ MEDIA MBC Drama MBC every1 MBC MUSIC MBC Queen MBC SPORTS+

동호회 가을철 행사 10월 집중

10월 등산 골프 낚시대회 / 11월 바둑대회 원로문화탐방
한문동호회는 매주 목요일 사우회사무실서 맹자 공부

사우회 하반기 동호회 행사가 9월 추석 명절을 쇠고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치뤄진다.

10월에는 등산대회, 골프대회, 낚시대회 등을 치르고 11월에는 바둑대회와 원로문화탐방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한편 한문동호회는 매주 목요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맹자를 열공중이다.

2013바둑대회 성황리 마쳐

A조 한박무(보도) B조 양홍열(기술) 우승

2013년 봄철 바둑대회에서 한박무(보도)-양홍열(기술) 회원이 우승했다. 한박무 회원은 A조 결승에서 권혁준(편제) 회원을 이겼고, 양홍열 회원은 B조 결승에서 조은국(관리) 회원을 이겼다.

한회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하면서, 2009년 가을철 대회 이후 4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양홍열 회원은 첫우승이다.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회원에게는 고급 남-녀화장품 세트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올해 봄철 바둑대회에는 A조(아마6단~5급)에 18명, B조(6급~9급)에 16명등 모두 34명이 참가했다. 사우회는 참석한 회원 전원에게 치약-비누 1세트씩을 선물로 드렸다.

나는 자유당 말기 KBS 라디오로 출발해, KBS-TV의 개국과 함께 본격적인 방송생활을 시작했다. 그 뒤 TBC-TV, MBC-TV의 개국에 따라 자리를 옮겼다. 초기에는 드라마나 다큐멘타리의 PD도 거쳤지만 방송생활 대부분 맡은 분야는 대중음악이었다.

대학가요제가 폐지되다니 달랠길 없다
우리나라 가요계는 오랫동안 뽕짝이 대세였다. 그러나 나는 뽕짝보다는 당시 생소했던 재즈나 팝송을 좋아했고, 뭔가 새롭고 현대적인 대중음악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해서 기획한 행사가 'MBC 대학가요제'였다. '대학가요제'는 TV제작국 부장이었을때 부터 제안했는데 회사에서 OK가 난것은 편성국장이 되고나서 3년 뒤였다. 그리고 1977년, 드디어 중구 정동에 있는 문화체육관에서 '제1회 MBC 대학가요제'가 열려 서울대 농대 밴드인 '샌드페블즈'가 '나 어떡해'로 대상을 거머쥐었다. 이후 'MBC 대학가요제'는 대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청년문화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음악제로 명성을 떨치며 심수봉과 배철수-임백천-신해철-노사연-유열 등 내로라 하는 스타들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그런 프로그램이 36년만에 없어진다는 소식이다. MBC 예능본부가 최근, 지난해 36회를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대학가

MBC 30년의 추억들

임 성 기 전 MBC 감사



▶ 왼쪽부터 가수 해은이, 임성기 PD, 작곡가 길옥윤
요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스타 등용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작비에 비해 시청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란단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이런것일까? 허탈해지는 마음을 달랠길이 없다.

심수봉과 박선호
1979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에서 연말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 사장실로 갔더니 중앙정보부 인사부장인 박선호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리허설 중이던 가수 심수봉을 당장 청와대 안가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리허설도 끝나지 않았고 제작시간도 빠듯해 그럴수는 없다"고 거절했지만, 이환의 사장까지 보내라고 하는 바람에 심수봉은 리허설을 끝내지 않은채 박선호를 따라 바로 안가로 갔다. 그날 밤 그 안가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이

피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 뒤 김재규 편에 섰던 박선호도 사형을 당했는데 심수봉을 데리러 왔을 때 보았던 젊고 참하게 생겼던 그의 얼굴이 어제일처럼 기억난다.

내가 만난 대중가요 예술가들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빛낸 연주자, 작사작곡가, 가수들 중에는 의외로 지식인들이 많았으며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다. 나에게는 그들과의 정겨운 만남과 추억들이 하늘의 별처럼 깔려있다. 일본에서 음대를 나온 원로가수 현인씨는, KBS-TV 초창기 내가 맡고있던 <이밤을 즐겁게>라는 쇼 프로그램의 MC였는데, 생방송이 끝나면 명동 뒷골목의 소줏집이나 다방에서 담소를 나누던 기억이 선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되어 나를 슬프게 했다. 그리고 작곡자 겸 연주자이었던 길옥윤과 박춘석, 상송을 감미롭게 부르던 가수 최양숙 등도 서울대를 나온 지식인들이었다.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 나이 80을 넘기고 보니 젊었던 시절이 그립고 그중에서도 많은 세월을 보낸 MBC나 청춘을 불살랐던 가요계의 추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그래서 정동 MBC사우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항상 고향에 간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 사우회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한다.

연회비 내신분들

※연회비는 1년에 2만원이며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로 보내주시시오.

평생회비

오영환(관리)5/06 유근혁(기술)5/24 윤 혁(편제)5/29 김순배(기술)5/30 이경기(관리)6/04 송원근(관리)6/05
이용석(편제)6/12 윤재근(보도)6/21 안창균(관리)6/25 김영철(편제)7/01 신동수(관리)7/04 오원섭(관리)7/04
윤영무(보도)7/10 김종남(기술)7/10

연회비

5월 김병문(13) 김정명(13) 김주영(12-13) 김창동(13) 노영일(08-12) 박문식(13) 신흥구(17-18, 80세납부끝)
오남일(13) 이기호(13) 이영하(11-15) 이오기(13) 이재인(12-13, 80세납부끝) 이재휘(12-13)故이종환(07-12)
조한진(13) 하영석(13) 하재율(11-13) 황중휘(13)

6월 권오룡(업무, 13) 김상철(13) 김조곤(13) 서상규(13, 80세납부끝) 유홍철(13) 이경기(10-12) 임동훈(13)
전육성(11-12) 전정익(13) 정상자(10-13) 정석진(12-13) 조춘희(13) 홍학표(13)

2013년도 회원 건강검진 안내

▶ 개인별로 건강검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우회 회원들을 위해서 종합 검진기관과 협력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검진비용은 MBC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2013년도 사우회회원 종합검진 협력기관			
(개인별 희망회원 : 검진비용은 본사와 동일조건)			
기 관	전화번호(병원)	기 관	전화번호(병원)
KMI 여의도검진센터	368-8114	서울대검진센터	2112-5500
여의도 성모병원	3779-2400	국립암센터	031-920-1212
순천향대학병원(한남동)	709-9160/9161	강남 하트스캔	564-3070
순천향대학병원(부 천)	032-621-5026	차병원 (역삼동)	2191-3931
일산병원	1577-7013	서울아산병원	3010-5000
일산동국대한방병원	031-961-7698	IFC 검진센터 (여의도)	1544-2992
이대목동병원	2660-5117		

경조사항

경 사

팔순 윤여복(보도)8/09	김경식(편제)9/08	장두원(편제)9/09	이병현(업무)9/30
고희 손도정(관리)8/04	박문식(대구)8/09	차인태(ANN)8/11	이영철(기술)8/16
이창호(기술)8/23	고 진(보도)9/01	최창업(업무)9/01	여태성(편제)9/14
한영희(업무)9/15	김휴선(보도)9/17	류근수(대전)9/25	이동엽(기술)9/28
원춘재(기술)9/30			
회갑 강찬임(편제)9/08	전춘욱(관리)9/11	장정기(미주)9/17	김경로(기술)9/20

결 혼

이인숙(ANN)장남6/02	장창현(보도) 장남6/08	조은국(관리)장남6/08	최운형(ANN)큰딸7/06
최호철(관리) 3녀7/06			

부 음

주광순(관리)시부상5/23	류상철(편제)부친상5/25	김경환(업무)모친상5/28	신흥구(관리)장모상5/28
정충성(보도)장모상6/10	권영삼(관리)부친상6/16	이중세(관리)모친상6/17	윤재민(편제)부인상6/27
허경희(관리)남편상7/02	김종남(기술)장인상7/03	조은국(관리)모친상7/09	

- **이종환(편제)** : 5월 30일(목) 폐암으로 별세. 향년 77세. 1964년 라디오 PD로 입사했으며, MBC-FM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이종환의 음악살롱' MBC-AM '별이 빛나는 밤에' 등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라디오 DJ계의 대부로 통했다. 1996년에는, 20년 동안 MBC 라디오를 진행한 DJ에게 주는 '골든마우스상'을 최초로 수상하기도 했다.

신규 입회

5/20	洪石振(기술)	011-230-7693 / 종로구 청운동 산1번지 벽산빌라 1011호
5/29	尹 赫(편제)	010-8979-6070 / 02-594-2323 /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A 106-601
6/05	宋元根(관리)	010-8933-2694 / 042-489-7755 / 대전시 서구 월평동 무지개A 106-801
6/12	李容碩(편제)	010-5202-7856 / 강서구 가양동 448-1 강나루현대A 109-2002
6/21	尹在根(보도)	010-5386-9341 / 02-521-3029 / 서초구 서초3동 대림e편한세상 202-1204
6/25	金相哲(보도)	010-5289-9865 /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85 현대I-SPACE 1502호
6/25	安昌均(관리)	010-5311-0792 / 070-7620-0792 / 마포구 도화동 도화현대홈타운A 210-1404
7/04	申東洙(관리)	010-9274-6151 / 031-811-4905 /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동문A 301-1102
7/04	吳元雙(관리)	010-9197-0583 / 070-8717-4696 / 강서구 등촌동 주공A 1001-310
7/04	金容寬(편제)	010-9105-2119 / 031-815-4901 /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후곡마을 1403-1103
7/10	尹永武(보도)	010-5384-0035 / 02-2696-4165 / 강서구 화곡3동 대우A 145-1405

전화/주소변경

▶ 전화번호 (특히 핸드폰)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님들께서는 사우회사무처 (02-722-7416)로 바로 연락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ㅣ 편 제 ㅣ

김건영 010-5933-2549 /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8 창덕에비빌 606호
이화옥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137 인정프린스A 103-504

박경식 010-5060-1639

이연현 010-3711-5175

이오기 파주시 동패동 200-1 교하벽산A 303-703

ㅣ 보 도 ㅣ

이문노 인천시 계양구 살라리로 21 경남아너스빌 103-1001

정길용 김포시 운양동 1314 한강한라비발디 102-702

ㅣ ANN ㅣ

임국희 010-5304-8093

ㅣ 기 술 ㅣ

권태섭 010-5261-3056

권태수 010-8668-7016

유규현 010-2301-1393

이기선 010-3223-6593

ㅣ 업 무 ㅣ

김철순 010-3851-1200

이화옥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137 인정프린스A 103-504

이현보 강동구 천중로9길 8, 202호

ㅣ 관 리 ㅣ

강지현 은평구 갈현동 396-1 (범일빌딩10층)

서대문지점

김필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83 샘터마을 220-1201

신민철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80 월드메르디앙 오피스텔 601호

신해명 010-6208-1615

이기섭 010-8754-8026

이성수 마포구 서교동 490 메세나폴리스 101-1403

주광순 010-6757-6746

최한상 강동구 양재대로 96길 79, 둔촌신동아A 102-905

허 윤 010-7110-1620

ㅣ 미 주 ㅣ

김현철 14860 SW 35 St Davie, FL 33331, USA

ㅣ 청 주 ㅣ

구궁서 010-9242-9173

이 사람!

어느 사치스런 도전 이 또한 인생의 또 다른 재미 아닌가

- 나의 체력 테스트 지리산 등반기 이 양 길 전 삼척MBC 사장

<60대인 우리들의 체력이 10년 후인 70대에는 얼마나 떨어질까? 60대에 해보았던 지리산 종주를 70대에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매우 궁금했다. 그래서 지리산 종주를 한뒤 꼭 10년이 되는 올해, 그 지리산에서 나의 체력을 테스트 해보고 싶었다. 2003년 9월, 필자와 김진호, 하광언, 이의열 前사장등 4명은 성삼재에서 시작해 노고단-반야봉-천왕봉을 오른 뒤, 중산리까지 사흘 동안 지리산을 종주한 적이 있다.

60대 초반에서 중반의 나이였던 네 사람은 북한산과 도봉산을 자주 오르던 터라 힘은 들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종주를 끝냈던 즐거운 추억이 있다. 그래서 올 봄부터, 종주 10년을 기념하여 다시 한번 지리산 등반에 도전해 보자고 슬슬 바람을 잡았다. 그러나 대학 강의와 개인 사정으로 결국 하광언-김진호 사장이 빠지고 나와 이의열 두 명만 도전에 나섰다.

산행 일정은 5월 27일 함양의 '백무동'을 출발해서 '장터목 산장'과 '연하천 산장'에서 자고, 29일 '백사골'을 따라 남원의 '반선'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일정이 확정되자 나는, 나 때문에 등반 일정에 차질이 있을까 염려되어 북한산과 안산, 백련산을 걷고 또 걸으면서 열심히 몸을 만들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을 만나고 말았다.

야속하게도 산행을 시작하는 27일과 28일 이틀동안 지리산에 150mm의 호우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산행 전날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이 정도의 호우 같으면 당연히 산행을 포기했어야 했지만 어렵게 산장을 예약한데다 지금까지 힘들게 체력단련을 해 온것이 아까워 일단 '백무동'으로 가서 판단하기로 했다. '백무동'에 도착했을때도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무엇엔가 홀린듯 주저없이 산행을 시작했다.

세찬 비바람 때문에 산행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중간, 중간에 만났으나



▶ 또 다시 오를 수 있을 까? 1,915m지리산 천왕봉에서 내려다 본 주능선이 구름 밑으로 펼쳐져 있다.

우리는 단념하지 않았다.

산행을 시작한지 1시간 40분쯤 되었을 까? 이의열사장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떴다. "오늘 오후 1:00부터 지리산 입산 통제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진호 사장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 10만 원군을 얻은 것처럼 반가웠다. 그래서 중산리에서 1박을 한 후 '장터목 산장'을 거쳐 '백무동'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선택해 다음 주에 바로 산행을 하기로 했다. 6월 4

60대 지리산 종주경험과 자신감 갖고 꼭 10년만인 70대에 도전장 내밀어

혹여해서 도봉산 북한산 오르내리며 몸 만들기에 전념

꼭우로 종주무산, 김진호 이의열 회원과 함께 중산리-장터목-백무동 당일 산행 나서

숨이 턱까지 찼지만 지금 아니면 다시 오를 수 없을 것 같아 천왕봉에 달라붙어

"내일까지 호우가 계속되면 대피소에서의 이동이 금지된다"고 했다. 우리는 하늘을 원망하며 하산할 수 밖에 없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열 받아서 병 날것 같으니 하루 코스라도 지리산 등산을 다시하자"는 것이었다. 산 위 대피소에서 자지만 않는다면

일 아침, 세 사람은 '중산리 매표소'를 출발해 10년전 함께 내려왔던 그 가파른 산길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다. 날씨도 좋고 당일로 끝나는 등산이기 때문에 취사도 구와 비웃이 필요없었고, 비상식량과 같이 입을 옷이 줄어 배낭은 한결 가벼웠다.

세 사람의 몸 컨디션에 따라 '칼바위' 갈

림길에서 천왕봉 등산을 포기하고 '장터목 산장'으로 가는 쉬운 코스를 택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천왕봉은 다시 올라 갈수 없을것 같다고 해서 힘든 길로 들어섰다.

정상까지 0.8km 남았다는 '개선문'이 보였다. 그러나 그 0.8km가 왜 그렇게 멀고 높은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속에 가쁜 숨을 몰아 쉬면서 오르기를 50여분, 드디어 천왕봉에 올라섰다. 매표소를 출발한지 4시간 20분 정도 걸린 셈이다. 정상에는 먼저 올라온 3~40여명의 등산객들이 쉬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뜨거운 햇볕은 정상에서의 달콤한 휴식을 만끽하지 못한채 서둘러 하산길에 나서게 했다. '장터목 산장'을 지나, 8일 전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았으면 올라 왔을 아쉬웠던 그 코스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큰 비에 등산로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불규칙하게 깔아 놓은 돌계단을 몇시간 씩 걸어 내려가는 것은 하체에 큰 무리를 줄 수가 있었다. 더구나 서울행 버스시간을 여유있게 맞출 속셈으로 속도를 냈기 때문에 정상으로 올라갈때 보다 오히려 힘이 더 들었다.

'백무동'에 도착했을때는 오후 4시경, '중산리' 매표소를 출발한 지 9시간 10분이 경과하고 있었다.

등산 안내지도에는 그 코스가 7시간으로 잡혀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거의 종주에 준하는 3일 간의 산행 도전이 호우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번 천왕봉 산행 결과는 비록 70대 일지라도 평소 몸 관리하고 산행시간을 여유있게 잡는다면, 지리산 종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 몸이 건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조그만 성취감 또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부산MBC 사장 김수병 대전MBC사장 김창욱
MBC경남 사장 황용구 청주-충주MBC 사장 이용석
울산MBC 사장 윤길용 강릉-삼척MBC 사장 임무혁
여수MBC 사장 윤영옥 안동MBC 사장 김상철
포항MBC 사장 이우철 MBC미주법인 사장 윤동열
MBC미술센터 사장 정운현 iMBC 사장 허연희
MBC플러스미디어-MBC스포츠 사장 안광한

MBC 관계회사 신임 사장 선임

MBC 관계회사 신임 사장들이 선임됐다. 부산MBC 김수병 사장은 유임됐으며 대전MBC 사장에는 김창욱 아나운서 국장이 선임됐다.

MBC경남 사장에는 황용구 보도국장, 청주-충주MBC 사장에는 이용석 글로벌사업 본부장, 울산MBC 사장에는 윤길용 편성국장이 선임됐고 강릉-삼척MBC 임무혁 사장은 유임됐다. 여수MBC 사장에는 윤영옥 논설위원실 국장, 안동MBC 사장에는 김상철 논

설위원실 실장, 포항MBC 사장에는 이우철 디지털본부장이 선임됐다.

MBC미주법인 사장(파견)에는 윤동열 전비서실장, MBC미술센터 사장에는 정운현 용인드라마 개발단장, iMBC 사장에는 허연희 스포츠제작국장, MBC플러스미디어-MBC스포츠 사장에는 안광한 전MBC 부사장이 선임됐다.

김종국 사장은 6월 3일에 열린 관계회사 신임 임원 연찬회에서 "지역사들이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동정



박태웅(보도)

한국체육언론인회 제5대 회장 선임

前MBC스포츠국부국장-한국체육언론인회부회장 겸 사무총장. 5월 30일에 열린 2013년 한국체육언론인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5대 회장에 선임됐다. 박회장은 1984년에 MBC 스포츠국에 입사해 스포츠취재부장과 스포츠제작부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 한국체육언론인회 창립때부터 사무총장을 맡아왔다.



김영기(기술)

제18회 경기도 서예 전람회서 최우수상 수상

6월 7일에 열린 제18회 경기도 서예 전람회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회원은 1998년에 MBC에서 정년퇴직 한뒤 2000년부터 서예를 시작해 지금은 대한민국 서화예술협회 초대작가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현보(업무)

광명시 발전 기여 공로로 표창장 받아

광명시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6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회원은 고령(83세)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봉사를 하고 있으며 아직도 현역 광고맨으로 활동하는 등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있다.



이궁희(편제)

'빛 너머 빛' 주제로 3번째 개인전

7월 3일 ~ 8월 13일 춘천MBC서 전시

前MBC사장. 자신의 3번째 개인전을 춘천MBC (춘천시 삼천동 238-3) 1층 '알뮤트 1917'에서 갖고 있다. '빛 너머 빛'을 주제로 한 이번 개인전에는 풍경화를 위주로 100호 및 50호 작품 3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기간은 7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다.

한문공부방/ 유희근의 논어 이야기 7



- 나만 잘못이냐?

국세청의 뇌물상납, 자치단체장과 고위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부정, 원자력 발전소 관계자들의 부정, 장관 후보자의 다운 계약서, 주민등록 위장전입, 박사학위 논문 표절..... "모두 다

하는데, 나만 잘못이냐?"

"古之學者(고지학자)는 爲己(위기)러니, 今之學者(금지학자)는 爲人(위인)이로다." 논어 헌문(憲問)편에 나온다.

"옛날에는 자신의 도(道)를 먼저 이루기 위해서 공부했다. 그러나 지금은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즉 남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뜻이다. 공자는 이를 두고 "말로는 백성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권력자에게 잘 보여 출세하려는 목적이다."라고 갈파했다.

"배움이란 자기를 먼저 닦고 나아가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古學爲己(고학위기)는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